

# 일제하 언론인 김동성<sup>1)</sup>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김옥영\*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한국 신문의 보도 및 편집 관행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대체로 언론학자나 국어학자들이 신문기사 문장과 기사형식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분석이나 자료검증보다는 대체로 현장 언론인들의 기억이나 연구자의 느낌 등에 의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학 후 <매일신보>에서 근무하다가 1920년 창간 <동아일보> 일선기자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대표적 민간신문이었던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을 거친 김동성 기자의 취재활동을 분석하여 1920년대의 보도 및 편집 관행을 유추하고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참고로 한국 최초의 기자실무지침서이자 언론관련 서적인 김동성의 『신문학(新文學)』도 함께 분석하였다.

김동성이 활동하던 시기의 기사는 대부분 무기명 기사였다. 이로 인해 각 기자별 취재보도 활동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김동성의 경우는 비록 만화나 삽화, 연재소설 등 직접적인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와 관련된 것은 적을 지라도 기명기사를 상당히 실었다. 그러한 김동성의 활동을 통해 당시 취재보도 측면에 있어서는 현장주의 원칙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신문학』의 분석을 통해 사실보도 원칙의 주장, 또 기사작성에 있어서 역피리미드 원칙과 정확성, 신속성, 시의성 등이 강조되었던 점을 보면 당시의 취재보도 관행이 무척 세련되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 김동성, 신문편집, 취재보도, 일제하 언론인

---

1) 호 천리구(千里駒). 경기 개성(開城) 출생. 천리구(千里駒)라는 필명으로 더욱 유명하다.

\* solki@dreamwiz.com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883년 한성순보의 창간이라는 근대언론의 시작으로 한국의 언론역사도 120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는 언론사(言論史)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해도 모자람 없이 언론은 한국 근현대사와 성쇠를 같이 해왔다(정진석, 2001a). 하지만, 언론사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그동안 소홀했다. 구한말의 선구적 언론과 항일 구국적 언론투쟁사, 언론의 정치·사회·경제적 연구의 치중은 정작 다루어야 할 언론의 취재·기사·보도와 같은 일상적 활동에 대해 소홀하게 만들었다. 또 언론사 연구에 있어서 인물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선각자·언론투사·언론사(言論社) 간부위주의 인물론은 취재현장의 생생한 언론사(言論史)를 보여주는 데 부족하였다. 이에 한국 언론사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제기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방법적인 면에서 주로 구체적인 사료를 통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치적, 사상적 논의보다는 편집이나 취재보도 기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국 신문의 보도 및 편집 관행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대체로 언론학자나 국어학자들이 신문기사 문장과 기사형식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분석이나 자료검증보다는 대체로 현장 언론인들의 기억이나 연구자의 느낌 등에 의지하고 있다(이재경,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동성의 언론활동을 통해 1920년대의 편집, 취재, 보도 등의 일상적이고 구체적 언론활동을 정리함으로써 당시의 언론을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시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김동성은 일제시대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를 모두 거친 언론인이자, 당시로서는 드물게 미국에 유학하면서 언론학(言論學)을 수학(修學)한 엘리트였다. 또 학자로서가 아니라 현직 언론인으로서 『신문학(新聞學)』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자실무 지침서와 같은 책을 최초

로 저술하기도 했다. <매일신보>에서 일선기자로 활동을 시작한 김동성은 민족지 창간 이후 창간 <동아일보>의 편집·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재직 시 일선기자, 특파원, 작가, 강연자, 저술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언론활동에 광범위하게 관여하였다. 이후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서는 편집국장을 역임하는 등 일제하에서 비중 있는 언론활동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는 연합통신을 설립하여 초대사장 및 초대 공보처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언론사(韓國言論史)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정진석, 2001b), 일제하 언론사가 항일운동이나 친일논쟁 등의 정치·사회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언론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동성은 그의 이력(履歷)뿐만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이루어 놓은 활동업적만으로도 연구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일제하 3대 민간지의 초기 성장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지닌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일제하 김동성의 언론활동은 다양하며 역동적이었다. 우선 10여 년의 미국 유학생 생활 가운데 언론학을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교포신문에서도 활동하였다. 귀국 이후에는 <매일신보>에서 활동하며 이후 그의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이상협과 만나게 돼, 1920년 <동아일보> 창간 작업에 참여하였고, 1924년 <조선일보>로 옮겨가기 전까지 일선 기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1924년부터 시작되는 <조선일보>에서의 활동은 신문사 간부(편집국장)로서 당시 <동아일보>에게 밀리고 있던 <조선일보>에 변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화사건 이후 1932년부터 1935년 일제하 언론활동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조선중앙일보>에 몸담음으로써 일제하 3

대 신문에서 모두 활동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와 같은 이력의 소유자인 김동성의 언론 활동의 사례연구는 당시 견집이나 취재보도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실증적 작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김동성의 언론활동 입문 배경과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연구문제 2] 김동성의 <동아일보> 재직 당시 편집 및 취재보도 활동 내용과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김동성에 대한 학문적이고 통합적인 기존연구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의 활동을 충실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먼저 김동성이 작성한 글에 대해 <매일신보>는 영인본을 참조하였고, <동아일보>는 창간호부터 그가 재직했던 1924년까지를 마이크로 필름과 <동아일보> 홈페이지의 PDF 서비스 검색기능을 병행해 발굴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외에 당시 김동성이 저술한 『신문학(新聞學)』과 잡지에 투고했던 글들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했다. 또 그가 직접 쓴 회고록과 그의 지인들의 증언을 모아 만들어진 전기(김을한, 1981)를 참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1차자료 외에 2차자료로서 김동성에 대해 언급했던 자료들을 통한 문헌연구도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성을 진술할 수 있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문헌의 사실 확인 작업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김동성이란 인물을 파악하고, 당시 언론활동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자 했다.

### 3. 1920년대 전후의 한국 언론의 관행

김동성의 언론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언론의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시 전후의 언론 관행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합방 이후 1920년 이전의 한국 언론은 일제의 광무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적용받아 독립적 언론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일제는 한국어 신문 <매일신보>, 일어신문 <경성일보>, 영어신문 <The Seoul Press>와 같은 3개 국어로 된 기관지를 발행하여 한국통치의 선전기관으로 삼았을 뿐이다(정진석, 1990). 한일합방 이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총독부는 한국인들에게는 신문 발행을 일체 허가해 주지 않았으나 단 한 건 외국인 명의로 발행을 허가해준 한국어 신문 <기독교신보(The Christian Messenger)>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정치적 내용을 배제하고 종교에 관한 소식과 신앙에 관련되는 내용을 위주로 편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 한국 언론은 일제 통제하의 편집방식, 취재보도 관행을 따르게 된다. <매일신보>의 경우 정치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학예기사에 중점을 두고 편집이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 본토에서 발행되던 일본신문은 서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서구신문을 모델로 해서 주요 일간지들은 수많은 독자들의 기호·취미를 상승시킴으로써 신문독자를 크게 늘리기 위해 문예란을 발행했다(김현준, 1929). 일본의 영향력하에 있으면서 정치면이 활성화 될 수 없었던 한국신문은 이러한 일본신문의 편집방식을 수용하였다. 당시 신문기자로 활약하던 인물들이 대부분 작가로 활동했고, 또 이름 있는 문인치고 언론계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이 드물 정도이다. 신문계의 귀재로 불릴 만큼 편집과 경영에 뛰어나 수완을 보였으나 글은 별로 남기지 않았던 이상협도 <매일신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하던 초기에는 몇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sup>2)</sup>

이와 같은 편집관행은 1920년 민족지의 등장 이후로도 지속된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한국신문은 독자적 편집원칙을 형성하였다. 당시 한·중·일 3국

2) 알렉산더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일인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派翁)가 '岩窟王'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海王星'이란 이름으로 중역하여 1916년 2월 10일부터 1년 이상 연재하여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앞서 몇몇 일본신문이 서구소설을 연재하면서 획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작품이었다.

신문의 비교 연구로 한국 최초의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현준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김현준, 1929).

그 한 가지 실례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유력지인 <동아일보>는 그 기본형태—이를테면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횡단 처리방식—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신문이나 특히 기사면의 큰 부분을 광고에 할애하고 있는 중국신문에 비해서—물론 중국에서도 지면 한 면 전체를 광고로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한국신문은 그 대다수가 이와 같은 경향을 피하고 있다. …순수한 한국신문, 즉 한국인에 의해 발행되고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행되는 신문은 국내외의 정치관계기사를 다룬 사설을 단별로 써 내려가다가 지면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으로 그날그날 발생한 중요 문제에 관한 기사와 외신기사, 일본통치에 관한 기사, 지방소식 등으로 메워진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의 3대 신문의 등장과 경쟁은 비록 여전히 정치면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각자의 존립을 위하여 편집과 취재보도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 이상협의 공헌은 단연 돋보였다. 이상협은 1912년 <매일신보>에 입사하여 7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독특한 편집기술을 보여 1918년 20여세의 젊은 나이로 편집부장이 되었다. 그는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크기에 변화를 주어 신문지면을 보기 좋게 편집하였다(조용만, 1992). <동아일보> 활동시기에는 편집국장과 ‘횡설수설’이라는 단평을 집필하면서 상당수 독자를 끌어들이었다. 또한 <조선일보> 활동시기에는 우리나라 신문으로는 최초로 조석간제를 단행하였다. 석간은 4면으로 1면을 정치, 2면을 사회, 3면을 지방 및 가정, 4면을 경제로 각각 나뉘었으며, 조간은 2면으로 하여 1면 정치, 2면 사회로 도합 6면제 신문을 발행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활동하던 1920년 초반 신문사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편집부, 조사부, 영업국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당시 신문들이 비슷하게 운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부는 기사취재를 위한 외근 및 내근 기자가 근무하는 곳이며, 조사부는 각종 자료를 모아서 정리·제공하는

곳, 영업국은 신문사의 회계를 맡으면서 광고를 담당하였다. 그 외에 사진재판부, 문선공장, 인쇄공장, 판매부, 발송실, 운송부 등이 있었는데, 각 부서의 역할을 당시 <동아일보> 창간 1주년 기념 특집호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21.4.3).

#### —편집부

신문지를 만드는 데 제일 먼저 활동하는 곳은 편집국이다. 이 편집국에는 매 아침에 기자가 모여서 그날의 신문기사를 모을 의론을 한뒤에 바깥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각기 맡은 곳이나 필요한 곳으로 나가서 재료를 모아가지고 돌아오며 안예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글도 쓰고 각 지방에서 오는 통신도 수습하여 가지고 그날에 모은 재료를 글로 쓴 후에 다시 제목을 붙여서 채자하는 공장으로 보내여서...

#### —조사부

여기 또한 편집국의 한 처소이니 위주하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논설도 주필이 여기서 쓰고 내외국 각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전보도 여기서 번역을 하며 신문에 게재하는 그림도 여기서 그린다...

#### —영업국

영업국이라 하는 곳은 신문사의 살림을 하는 곳이다. 신문사의 예산을 맞추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리부도 이곳에 있으며 사원의 임면상벌등을 맡아보며 서류의 발송접수를 정리하는 서무부도 이곳이오 각처로부터 광고를 모아서 그 원고를 정리하고 수습하여 이것을 신문에 게재하며...

이상과 같이 당시의 언론관행은 편집, 취재보도에 있어서 일본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한국신문 자체적인 편집 및 취재보도 관행도 형성되고 있었다.

#### 4. 김동성의 언론활동 입문배경 및 역할

김동성이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하고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된 데는 <동아일보> 창간을 주도한 이상협과의 관계 이전에 그의 미국 유학시절 신문학(新聞學)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미국 유학은 당시 청년들이 대개 신학문(新學問)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통례였던 것에 비해 상당한 파격이었다.

김동성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 계기는 미국인 선교사로서 개성의 한영서원(韓英書院) 학감(學監)으로 있던 왕영덕(王永德, A. W. Wassan)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김동성은 왕영덕의 알선과 소개로 그의 고향인 아칸소 주(州)에 있는 핸드릭스 대학으로 1909년 유학을 떠났다. 핸드릭스 대학에서 그의 전공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귀국직전 재학했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신문학(新聞學)을 전공(專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10여 년간의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1919년 귀국한 김동성은 <매일신보>에서 국내 언론활동을 시작하였다. 1919년 7월에 <매일신보>의 지면

- 
- 3) 당시 개성에는 미국 남감리교의 선교사가 포교활동을 시작하고 서울의 배재학당과 같은 교육기관을 남감리교에서도 설치할 계획으로 그 후보지에 서울과 개성과 원산을 책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세 도시 중에서 어디든지 먼저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곳에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한영서원이었다 (김을한, 1981).
- 4) 이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들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성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졸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학(新聞學)을 전공(專攻)했다기보다는 수학(修學)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는 그의 큰딸인 김옥렬(前 숙대총장) 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김동성은 오하이오 주립대를 3학년으로 편입해서 신문학을 전공하던 중 집안사정으로 귀국하였다. 또 1920년을 전후로 당시 미국 대학들에 저널리즘 스쿨이 개설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저널리즘 스쿨이 정식으로 개설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자신의 회상기(回想記)(김을한, 1981) 중에 “미국 유학중에 신문학(新聞學)을 공부한 탓으로...”란 표현이 나오는 점과 그가 미국 유학시절에 그곳 교민들이 발행했던 <신한민보>에 만평을 투고한 것으로 보아(손상익, 1995) 언론에 관심이 매우 컸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바뀌면서부터 김동성의 삽화(插畵)·기사 등이 발견된다. <동아일보> 창간 참여가 이상협(李相協)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자신 스스로 회상하고 있는데(김을한, 1981), 이는 <매일신보> 편집장이었던 이상협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일보> 창간멤버로 활동하게 된 김동성은 <동아일보>가 창간되기 전인 3월 17일, 한국 최초의 특파원(特派員) 자격으로 북경에 파견되어 중국 명사들의 축사를 받아오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때 미국 유학 전 1년간 소주(蘇州)의 감리교 경영의 동오대학(東吳大學)에서 유학하면서 알게 된 영어교사 로이 앤더슨과의 만남은 당시 중국 총통을 비롯하여 명사 수십 명의 축사를 단 6일 만에 받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일보> 창간호는 중국 명사들의 축사로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었다.

## 5. 주요 활동 및 업적

창간 <동아일보>에서 김동성은 조사부의 섭외를 담당한 일반기자로 활동했다. 창간 당시의 <동아일보> 간부진용은 발행·편집인으로 이상협, 사장 박영효, 주간 장덕수, 편집국장 이상협(겸), 정치·학예부장 진학문, 사회·정리부장 이상협(겸), 통신·조사부장 장덕준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고의동(학예=미술), 김형원(사회), 염상섭(정경=정치), 김정진(학예), 한기악(정경=경제), 유광렬(사회), 김태등(정경=외신, 번역), 신길귀(학예), 변봉현(사회=체육), 서승효(정경=외신, 번역), 최영목(정리=교정), 이승규(통신=논설), 신상우(정리=교정), 이서구(사회)등이 김동성과 함께 평기자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동성이 활동했던 조사부의 역할은 기사를 모집하여 이를 가나다 순서

---

5) 김동성이 최초의 특파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제하 한국언론의 해외특파원 활동에 관한 연구를 한 안희균은 엄밀한 의미에서 김동성이 최초의 특파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안희균, 1987).

로 책자를 만들어 후일 참고할 자료를 만드는 것과 지도사진과 각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목록을 작성하여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일이었다(김동성, 1924). 조사부에서 활동하면서 김동성은 삽화(插畵)와 만화(漫畵)를 그리기도 했다. <동아일보> 창간호 3면에 실린 삽화—기저귀에 <동아일보>라고 적힌 갓난아이가 ‘단군 할아버지의 뜻을 잇는다’는 글자를 닮고 있는 그림—를 시작으로 부정기적으로 삽화와 만화를 선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업적은 <동아일보> 제9호(1920.4.11) 3면에 실린 신문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의 ‘4칸 신문 띠 만화’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11호(1면 1컷—개척), 16호(3면 1컷—꽃 심는 아낙네), 17호(3면 4컷—동양과 서양), 100호(5면 1컷—100호 기념) 등에 삽화와 만화를 선보였다. 이와 같은 김동성의 선구적 역할은 1923년 ‘동명(東明)’이라는 시사주보에 11회에 걸쳐서 만화 그리는 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 <조선일보>에서 활동하면서 후일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된 ‘멍텅구리’와 같은 시사만화를 기획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1920년 8월에는 전10회에 걸친 단편소설을 연재하였다. 이후 그는 외국 소설을 번역하여 연재하는 일도 맡아, 1921년 2월 21일 <동아일보> 117호 4면에 연재되기 시작해서 같은해 7월 2일에 연재를 마친 『엘렌의 꿈』과 바로 이어서 7월 4일 310호부터 새롭게 연재하기 시작한 코넬도일의 『붉은 실』의 번역을 직접 담당하였다. 『붉은 실』의 경우 7월 3일자 309호에 새연재 번역소설에 대한 광고가 4면 중앙에 박스로 게재되었다. 외국소설 번역 연재는 김동성이 1921년 10월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만국기자대회와 워싱턴 군축회담을 참관하기 위하여 출국한 9월 27일 까지 계속되다가 10월 10일 408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귀국 이후 그는 11월 21일 <동아일보> 450호부터 11월 25일 454호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布吡行(포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 그는 만국기자대회 보고대회와 재외동포 위문대회를 위한 강연자로 장덕수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였다. 그 후 1922년 10월 17일부터 다시 그의 글이 실리게 되는데 ‘사해섬광(四海閃光)’이라는 제목하에 부정기적으로 1면에

해외 풍물 또는 토픽 거리를 소개하는 기사를 선보였다. '사해섬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해섬광 주요내용

번호	발행일	면 단	제목	번호	발행일	면 단	제목
1	1922.10.17	1 5	우리몸의 歷史	28	1923.07.25	1 5	睡眠姿態
2	1922.10.24	1 4	舌의 作用	29	1923.07.28	1 5	感覺生涯
3	1923.01.04	1 4	身體의 重量	30	1923.07.30	1 5	昆덕의 飛行力
4	1923.01.05	1 6	種痘	31	1923.07.31	1 6	琉璃道路
5	1923.01.07	1 5	蜘蛛漁網	32	1923.08.03	1 5	弊靴로 製紙
6	1923.01.13	1 5	蜂의 言語	33	1923.08.07	1 5	水泳規則
7	1923.01.15	1 4	身丈	34	1923.08.15	1 5	最初の 看護婦
8	1923.01.17	1 5	肉眼의 視力	35	1923.08.18	1 5	鳥類의 戀愛와 唱歌
9	1923.01.19	1 5	奇聞一束	36	1923.08.24	1 5	女子의 行步
10	1923.02.01	1 4	蟹의 外科手術	37	1923.08.27	1 5	「타이프우라이터」
11	1923.02.11	1 0	笑	38	1923.08.30	1 6	世界水量
12	1923.02.13	4 0	植木	39	1923.09.03	1 6	激動時의 重量
13	1923.02.15	1 4	淚는 殺菌藥	40	1923.09.08	1 6	千翎의 毛絲
14	1923.02.16	1 4	世界 最老馬	41	1923.09.09	1 6	뽀이갓트의 語源
15	1923.02.19	1 4	世界書籍數	42	1923.09.12	1 6	海上瀑布//선핀黨
16	1923.02.21	1 5	閃光一束	43	1923.09.13	1 6	노벨賞
17	1923.02.23	1 5	典當으로 致富	44	1923.09.15	1 6	「마라손」競走
18	1923.02.26	1 4	鴨의 翎毛	45	1923.09.17	1 6	綿紡績絲
19	1923.03.03	1 4	多産婦人의 一束	46	1923.09.19	1 6	「핀」
20	1923.03.08	1 4	文化의 進歩에 따른 英語어휘수	47	1923.09.30	1 4	聽力試驗
21	1923.03.09	1 5	頭髮數爻	48	1923.10.09	4 6	喪服의 由來
22	1923.03.12	1 4	風의 速度	49	1923.10.10	1 6	琥珀
23	1923.03.16	1 4	自手成家	50	1923.10.13	1 6	琉璃家屋
24	1923.03.20	4 5	動物의 꼬리	51	1923.10.27	1 6	個人事業의 價値
25	1923.03.22	1 4	最高額의 紙幣	52	1923.10.29	1 6	流動學校
26	1923.03.24	1 4	眼疾	53	1923.10.31	1 6	「그린위치」天文臺
27	1923.03.26	1 4	平民도 犯人捕捉	54	1923.11.01	1 6	奇異한 新聞
				55	1923.11.13	1 7	震災

이상과 같이 조사부 기자, 작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김동성의 활동은 1920년대 한국 신문의 편집과 취재·보도 시스템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

### 1) 만국기자대회 참석 및 워싱턴 군축회담 참관의 의의(意義)

김동성은 1921년 10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만국기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세계만국기자대회는 1915년 샌프란시스코 대회 이후 6년 만에 두번째로 열리는 대회이면서, 일제하에 있었던 한국의 신문기자가 초청되었다는 점에서 초청을 받은 <동아일보>는 매우 고무되어, 즉시 조사부 섭의를 담당하고 미국 유학파로 영어에 능통했던 김동성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김동성은 앞서 1920년 8월 두번째로 북경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미국 의원 시찰단의 한국행 유치에 성공을 거두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의 만국기자대회 파견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워싱턴 군축회담 참관이다.

워싱턴 군축회담은 당시 미국 대통령 하딩이 군비 축소 문제와 태평양 극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1년 11월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스페인, 벨기에 등 8개국에 초청장을 보내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의의 중심 과제가 일본의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 문제였기에 일본의 신문과 통신사도 이 회의 취재에 전력을 집중하였으며 파리평화회의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을 특파했다(야마모토 후미오/김재홍 옮김, 2000). <동아일보>에서 조사부 업무를 담당했던 김동성은 각종 통신기사를 통해 워싱턴 군축회담의 중요성을

---

6) 당시의 긴박하고 치열한 취재열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뉴스 보도전은 각 사가 신경을 써 다수의 특파원을 보낸 만큼 파리강화회의의 이상으로 활발했다. 휴즈의 제안은 <전통(電通)>이 가장 빨리 보도했다. <조일신문>은 중국 관계문제에서 타신문사를 앞서 갔으며, 중국 전권 대표의 제안 내용 보도는 외무성에서조차 그 정확성에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의를 통해 최대의 특종은 <시사신보>의 이토(伊藤正德)와 고토(後藤武男)의 보도였다. 그것은 ‘일영동맹은 폐기되었고 그에 대신하는 협약이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4개국 대표 사이에 비밀리에 협의되고 있는바, 그 윤곽이 정해졌는데 내주 초에 조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태평양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4개국 조약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는 전 세계의 신문을 놀라게 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 도쿄 특파원은 도쿄의 <시사신보>를 보고 런던 본사에 급전을 보냈다(야마모토 후미호/김재홍 옮김, 2000).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만국기자대회를 핑계로 출국하였으나 실은 워싱턴 군축회담에 참석하고자 계획했었다. 그의 군축회담 참석은 정식 허가를 받아서 참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원 시찰단 일행의 취재를 위해 북경에 특파되었을 때 알게 된 하원 외교위원장 포터를 우연히 만나 해결할 수 있었다. 김동성의 워싱턴 군축회담 참석은 당시 수많은 외국 기자들 가운데서도 소수만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일보>는 김동성의 만국기자대회 참석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 동아일보사에서는 1920년 9월 26일자 「세계기자대회에 기하노라」란 사실을 통하여 세계 인류의 양심과 자각을 촉진하는 언론의 책무와 사명을 위해서 만국기자대회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아울러 김동성의 참가를 과시하였다(김을한, 1982). 1920년 10월 18일자 1면에는 「萬國記者大會에 興하노라, 公正한 輿論은 平和의 先驅라」라는 사실을 영문과 함께 게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0년 10월 23일자 1면 1단에 「我社代表 金東成 副會長에 當選; 布口圭萬國記者大會에서, 「大會長의 通知書」 등과 「만국기자대회간부」라는 제목하에 ‘金東成’, ‘윌터·윌리암’, ‘하딩’ 등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김동성의 만국기자대회 부회장 당선은 참석 기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당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의 과시를 위하여 크게 보도되었다. 또한 부회장 축하 광고까지 모집하여 사세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다. 축하광고는 1920년 10월 24일자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계속되었다.

김동성의 귀국 이후 김동성은 ‘東亞日報發起在外同胞慰問會’라는 명목으로 전국순회강연회를 1년 여 동안 전개하였다. 남도(南道)에는 고하(古下) 송진우가, 북도(北道)에는 설산(雪山) 장덕수가 각각 연사로 나가고 김동성은 환등(幻燈)의 해설자로 나섰다. 거의 전국 곳곳을 순회하는 것으로 재외 동포 위문금을 모집하는 동시에 <동아일보> 사세 확장의 기회로 삼았다. 순회강연회 일정은 거의 매회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게재되었고, 각 광역별 순회일정은 1면 중앙에 4단으로 크게 게재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일보>는 독자와 광고수수 증가로 재정적

안정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이상협 의 수완이 상당히 발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김동성의 만국기자대회 참관 및 워싱턴 군축회담 참관 의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제하 한국언론이 세계 언론인들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과, 당시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군축회담의 특별취재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김동성의 기자정신을 확인하는 데 있다. 김동성의 워싱턴 군축회담 취재가 <동아일보>에 직접 실리지 않았으나, 김동성의 취재시도를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동아일보>에서는 개최일인 1921년 11월 11일자 사설에서 「華盛頓會議에 寄하노라, 朝鮮民族의 希望을 具하야,」 등을 비롯하여 전후 30여 차례나 군축회의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였다. 또한 2면의 대부분을 군축회담 관련 기사로 편집한 점은 일제의 통제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편집방침이 상당히 자의적이었던 점을 보여주고 있다.

## 2) 신문학(新聞學)의 저술

김동성은 <동아일보>에 재직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자 실무 지침서와 같은 『신문학(新聞學)』을 저술하였다. 신문학은 1924년 6월 송진우가 발행인으로 있었던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되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제17편 「新聞紙」가 서양의 신문에 대한 짧은 소개글이라고 한다면, 김동성의 『신문학』은 당시 <동아일보>의 실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관련 서적이었다.

『신문학』은 총4편 17장 120개의 유목으로 나누어서 당시의 신문사 조직, 기사작성법, 편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1편 「신문사의 조직」은 제1장에서 도회신문과 지방신문의 차이를 구분하고, 제2장 편집실, 제3장 공장, 제4장 영업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2장 편집실은 정리기자로부터 주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와 기자의 임무를 설명하였고, 제3장 공장은 채자실(採字室), 정판실(整版室), 인쇄실(印刷

室)을 비롯하여 인쇄장비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4장 영업국은 판매부, 광고부, 회계부의 각 임무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신문사의 조직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신문에 나타난 신문사 조직

편집실	공장	영업국
정리기자 / 「타기자」(사회부기자) - 노동기자, 해운기자, 경찰, 병원, 여관 출입기자 / 잡보기자 / 전신기자 / 지방기자 / 운동기자 / 교환기 자 / 「뭇」- 조사부 / 시장, 연극, 문예, 사교, 논설기자 / 만화가 / 사진가 / 편집국장 / 주필	채자실(採字室) 정판실(整版室) 인쇄실(印刷室)	판매부 광고부 회계부

제2편 「신문기사」는 제5장 기사와 그 가치, 제6장 탐보, 제7장 기사의 구조와 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기사 작성법으로서 오늘날 기사작성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사는 무엇인가라는 절에서 ‘시기에 적하여써 다수인에게 흥미를 興하며 또 다수한 독자의 흥미를 리할수록 그 기사는 가치가 大하다.’라고 기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흥미’에 대해서는 ‘독자의 친밀여부, 중요인물에 관한 기사, 독자의 직접관계 유무’등에 따라 비례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기사의 시의성 및 근접성 등과 관련있다. 또 ‘기자의 자격’으로 갖추어야 할 성질로 ‘迅速, 堅忍, 正確, 智慧, 機敏’ 등 5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기자들에게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제7장에서는 기사의 구조와 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역피라미드 형식과 육하원칙에 의한 기사작성을 강조하고 있다.

74. 文勢 — 記事初頭에 文勢를 入하나니 何故오하면 독자의 眼에 記事初頭가 먼저 現出될 뿐아니라 奔忙한 독자가 기사의 始初만 보고도 그 기사에 대한 흥미가 有하면 기사전체를 보겠지마는 不然하면... 그래서 最히 중요한 부분을 시초에 기입하고는 漸次微弱한 설명에 불과하여 편집자가 整版할 時에 他的 緊急

한 기사가 유하면 그기사의 下端은 쓰너바려도 무관한 것이다.

75. 記事의 緒頭—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신문기사에 最히 적절하여 사건전부의 要領을 緒頭に 기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관련한 이물과 시간, 장소, 人인 及 結果를 詳知케하나니 卽 무엇, 누구, 언제, 어디, 엇재, 엇더케를 간단명료하게 기술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신문의 기사 작성에 대해서는 '자유기사'라는 형식 때문에 위와 같은 역피라미드 형식이나 육하원칙에 의한 기사작성이 드물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신문기사식이라기보다는 단편소설식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78. 자유기사— 緒頭句節에 적요한 기사보다 우리 조선의 신문에는 자유기사가 多하니 此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結果를 대부분 읽은 후에야 解得케하는 것이니 진정한 新聞記事式보다는 단편소설식이라 함이 可하다...

이와 같은 당시 신문기사의 구조와 체제에 대한 분석은 한국신문의 역피라미드 기사유형의 도입시기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이재경, 2001)를 1920년대까지 확장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3편 「기사의 종류」에서는 제8장 돌발기사, 제9장 연설, 인터뷰와 재판, 제10장 기사의 특종, 제11장 특수기사, 제12장 논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편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사의 정확성으로서 '火事와 災變'에 있어서는 원인, 손해액, 인근의 위험, 死傷된 人數, 유명한 인물의 關係여부, 특별사정 등을 기록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설·인터뷰·재판 기사와 같은 경우는 '言辭의 樣式'을 轉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4편 「편집」에서는 제13장 기사편집, 제14장 제목, 제15장 교정, 제16장 製版, 제17장 新聞의 用무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13장 기사편집은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활자의 종류

와 서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제14장 제목에서는 제목이 ‘정확(正確)’하고 ‘분명(分明)’해야 할 것과,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17장 신문의 용무에 있어서는 신문의 목적을 ‘보도, 사건해석과 時下問題의 논평, 유익한 고시와 勸勉, 好讀物提供, 廣告의 媒介’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기자의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간부의 결정에 절대 복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신문사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20. 記者의 問題—신문의 방침은 신문의 간부에서 결정함으로 기자는 절대 복종할 것이며 僞報는 最初부터 始作을 아니할지니 편집장을 其時에 欺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관념이 低劣하여지며 僞報記者는 자신에 해가 되는 동시에 僞報에 관계한 인물과 其新聞全體를 傷害함이니 사회의 대사명을 帶한 無冠帝王의 行할바 아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학』은 후배 기자들에게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에 김동성이 편집국장으로서 활동했던 <조선일보>에서 1930년대 중반 기자 생활을 했던 김광섭의 증언(김광섭, 1988; 인터뷰) — 그때까지도 기자의 훈련제도나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신문학』의 의의는 당시의 편집 및 취재보도 관행이 전근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근대적 신문 편집 및 취재보도 관행을 따랐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 3) 기타 활동

<동아일보>에서 활동하던 김동성은 1922년 9월 3일 시사주보(時事週報) 형태로 발행된 <동명(東明)> 7이라는 잡지에 시사만화를 그렸다. 창간

7) 주간신문 형태로 발행된 <동명(東明)>은 육당 최남선과 진학문이 시사신문 후신으로 발행허가를 받아 타블로이드 18면의 잡지 형태로 발행하였다. 동명은 그 이전의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잡지를 통해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천명 보급함으로써 자주독립의 정신을 고취 양양”하는 ‘朝鮮主意’를 제창했던 우리나라 최초

호에 실린 그의 만화는 우리사회의 대동일치(大同一致)를 강조하는 만화로써 민족의 각성을 바라는 김동성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사만화의 실질적인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는(손상익, 1996) 김동성은 <동명>에 '만화그리는법'을 연재하였다. 1923년 2월 25일자 11면에 연재하기 시작한 '만화그리는법'은 1923년 5월 20일자까지 총 11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制課 선(線)'으로 시작한 그의 연재는 창작에 필요한 기본 도구와 사용 방법 등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인물, 신체 각 부위별 묘사 등 만화이론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그의 언론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만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작품을 출품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신문·잡지 등에 투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세심하게 적고 있다.

또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신문이나 혹은 잡지에 출판코자하는 그림은 지질(紙質)이 龜(거북)까닭으로 아조가는 선을 그으면 인쇄가 되지 아니할 염려도 업지 아니 하니 과히 가는선으로는 그리지 아니하는 편이 조타 大概初學者는 그림에 선을 넘우도 가늘게 굵고 넘우 距離가 바타서 인쇄하면 보이지 안케 되는 일이 종종 있다.(<동명>, 1923.2.25字 11면)

#### 4. 김동성의 편집 및 취재보도 활동의 의의와 한계

김동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관련 서적 출간, 최초의 해외 특파원, 정부 수립 이후 최초 공보처 장관 등 굵직한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업적이 미미해서

---

의 본격적인 주간지로 알려져 있으며(정진석, 1990, 272쪽), 당시 2만여부를 발간하는 붐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 무렵 일제는 신문지법에 의해 동명 외에도 몇 개의 종합지를 허가해 주었다. <동명>은 새로운 일간지 <시사일보>를 창간하기 위해 1923년 6월 3일자 통권 41호를 마지막으로 자진 정간하게 된다.

라기보다는 국내 언론사 연구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지금까지의 언론사 연구가 인쇄매체 위주의 매체 중심적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김동성의 활동을 정리하고 소개하면서 당시의 언론 관행을 직간접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접근이 비록 사실의 나열 같아 보이지만, 그동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언론관행을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동성은 일제하에서 미국 유학 기간 동안 언론관련 학문을 습득하고 또 미국 이민자들을 위한 언론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 활발한 언론활동을 펼쳤다. 그의 활동은 일선기자를 비롯해 편집국장 등 언론사 간부의 직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을 통해 당시의 언론관행·편집 및 취재보도의 구체적인 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동성이 활동하던 시기의 기사는 대부분 무기명 기사였다. 이로 인해 각 기자별 취재보도 활동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김동성의 경우는 비록 만화나 삽화, 연재소설 등 직접적인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와 관련된 것은 적을 지라도 기명 기사를 상당히 실었다. 그러한 김동성의 기사를 통해 1920년 한국 신문의 편집적 측면을 분석하는 의의를 찾는다면, 기사가 넘치거나 모자랄 경우 지면을 어떻게 할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가 그린 만화나 삽화는 정기적인 코너로서 자리하지 않았다. 만화나 삽화가 정기 코너로 자리하기 전까지는 기사가 모자랄 경우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방편으로 만화나 삽화가 추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그가 장기간 연재한 '사해섬광'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만화나 삽화 같은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 연재물을 제외한 그의 기사가 주로 1면이나 3면에 자주 등장했다는 점은 직접취재에 의한 기사로 채워져야 할 당시 상황에서 그렇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보여준다. 당시 신문은 2면의 경우에는 통신기사 위주로 통신기사의 가감에 의해 편집되었고, 4면은 학예란으로서 다양한 연재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그의 저서 '신문학'에 소개된 역피라미드형 기사작성에 의한 편

집방법, 제목의 중요성 강조, 인쇄와 원판과의 관계 고려 등은 당시의 편집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

취재보도 측면에 있어서는 현장주의 원칙의 실천이라는 그의 기자정신과 『신문학』을 통해 사실보도 원칙의 주장, 또 기사작성에 있어서 역피라미드 원칙과 정확성, 신속성, 시의성 등을 강조한 점은 당시의 취재보도 관행이 무척 세련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김동성의 기사가 직접적인 취재활동에 의해 작성된 것이 적다는 점과 조사부 섭외담당 기자로서 편집에 얼마만큼 관여했던 것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활동 업적은 당시의 편집 및 취재보도 시스템을 유추해 보는 데 필요한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 운영과 편집·보도가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김동성의 언론활동과 당시의 언론관행 형성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본 연구의 의의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당시 실제 지면의 분석 비교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일제하 언론인 김동성 기자의 활동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편집 및 취재 보도와 관련된 언론관행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언론사 연구가 거시적이고 매체 지향적인 연구였다면, 이제는 미시적이고 매체의 실질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광섭 (1988). 『고백과 증언』. 서울: 정우사.
- 김동성 (1923). 만화그리는법. 『東明』, 제25~제35호,  
 \_\_\_\_\_ (1924). 『新聞學』. 경성: 조선도서주식회사.
- 김을한 (1981). 『천리구 김동성』. 서울: 을유문화사.
- 김현대 (1987). 『일제하 동아일보의 민족운동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준 (1929). 『동양(한중일)에 있어서의 현대신문의 생성 발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박사학위 논문. 정음사(1977), 『신문학사』에 전재.
- 대한언론인회 편 (1992). 『한국언론인인물사화』. 서울: 대한언론인회.
- 동아일보 편 (1975). 『동아일보사사』. 서울: 동아일보사.
- 박용규 (1997). 일제하 여기자 직업의식과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1권, 5~42.
- \_\_\_\_\_ (1997). 여운형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3권, 168~202.
- 손상익 (1996). 『한국만화통사』. 서울: 프레스빌.
- 안희균 (1987). 『일제하 한국언론의 해외특파원 활동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야마모토 후미오. 김재홍 역 (2000). 『일본메스커뮤니케이션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길준, 박태준 역 (1976). 『서유견문』. 서울: 박영사
- 이재경 (2001). 한국신문의 역피라미드형 기사 도입과 정착에 관한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1호, 413~442.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_\_\_\_\_ (2001a). 『언론과 한국현대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1b). 『역사와 언론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선일보 편(2000). 『조선일보 80년사』. 서울: 조선일보사.
- 조용만 (1992). 『경성야화』. 서울: 창
- 천원주 (2002). 언론기네스북: 최초의 해외특파원/북경과견 동아일보 김동성 기자. 『신문과 방송』, 373호, 101.

■ 인터넷 사이트

동아일보사 [www.donga.com](http://www.donga.com)

조선일보사 [www.chosun.com](http://www.chosun.com)

두산백과사전 [www.empas.com](http://www.empas.com)

<동아일보> 1920~1924

<매일신보> 1919~1920

<조선일보> 1924~1932

■ 인터뷰

김옥렬 / 김광섭

(최초 투고 2004.06.02., 최종원고 제출 2004.07.10)

## A Study on Kim Dong-Seong's Activities as Journalist in 1920-30's

Ug-Young Kim

Research Fellow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Most studies of Korean Newspaper in historical view have focused on the news writing form and editorial practice. Those studies have much rely on the memories of ex-journalist or the impression of scholars. So this study aims to give the concrete figures of news writing forms and editing practices in 1920-30's by investigating Kim Dong-Seong's activities as a journalist.

He was a first journalist who studies journalism. He studied journalism during his stay in the Ohio State University as an english department student. After he came back to Seoul, he worked at the Dong-A Il Bo as an one of the first publish members. His activities as a journalist have much important meanings because of his varied works and careers. He also wrote a practical affair book for reporters which was the first book in Korea.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Kim Dong-Seong's activities in 1920-30's, the feature of edit practice in 1920's had much emphasis not only on the headline but on the relation between type and print, and at the same time the combination of news or the change of typography was one of methods which make the editing more variety. News materials were collected varied news sources and legworks by reporter. These results show us that such a news reporting practice in 1920-30's is similar to the contemporary.

Keywords: Kim Dong-Seong, news writing, news gathering, journalist in 1920-30's